

진제 스님, 간화선 세계화 위해 미국 간다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 간화선을 통해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미국 리버사이드교회, 유니언신학대학과 공동으로 9월 15~16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간화선 평화대법회와 종교간 평화대화2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5일 오후 7시(현지시간)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열리는 간화선 평화대법회에서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재미교포 등 뉴욕 현지의 지식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소개한다.

법회에서는 동화사에서 이운한 과불이 교회 예배당에 걸린다.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간화선이 ‘잡나’를 깨치기 위한 수행방편이라는 점과 참선수행의 효과, 간화선 수행법을 위한 마음가짐 등을 법문한다.

스님의 법문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인 헤민 스님이 통역한다. 이와 함께 동화사는 한국 간화선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진제 스님의 영어 법문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를 행사를 시작으로 보급한다.

행사가 열리는 뉴욕 리버사이드교회는 정치적 토론장소로 유명한

다. 교회는 마틴 루터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 피델 카스트로 등 주요 정치인들이 연설한 곳이다. 또, 달라이라마 법문이 열리기도 했던 이곳은 십자가 위에 과불을 걸어놓고 법회를 열 정도로 열린 종교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이 교회 목사는 자신이 직접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에 참가하겠다고 알려올 정도이다. 진제 스님의 이번 법문은 한국 스님으로는 최초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간화선평화대법회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세계 각 종교지도자들과 뉴욕 시민, 뉴욕 거주 교포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만큼 간화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크다”며 “한국 선불교가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수행종교라는 것을 진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4시 유니언신학대학에서 진행되는 종교간 평화대화2는 지난해 12월 동화사에서 열린 종교간 평화대화1, 풀니터 교수의 발표적인 해방신학자 풀니터 교수 등 학계와 종교계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풀니터 교수는 신학을 전공했지



2010년 12월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종교간 대화에서 진제 스님(왼쪽)과 풀니터 교수가 좌담하는 모습.

만 오랫동안 선수행을 해온 불교수행자이다. 그는 동화사를 찾아 진제 스님과 기독교-불교의 종교간 평화대화를 나누며 한국불교에 큰 환희심과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평화대화에 앞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말마프랜드 프로그램에서는 진한과 재미불교학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前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의 간화선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이

후 진제 스님과 동화사 금강선원 수좌스님들이 직접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실참을 지도한다. 행사는 4~5인 1조로 팀을 나누는 소그룹 대화형태로 진행되며, 200여 명이 사전신청 했을 정도로 현지인들의 관심이 크다.

유니언신학대학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교과 신학교로 해방신학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1836년에 세워져 학문과 실천 양면에서 신학교육이 이뤄진다.

성문 스님은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인류공영을 위한 평화의 수행법으로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문화행사의 위상을 세계에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를 종교간 대화의 산실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대구 동화사는 2010년 12월 세계적 석학인 풀 니터 교수를 초청해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진제 스님과 기독교-불교의 종교간 평화대화를 성사시킨 바 있다. 9월 15~16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대법회와 종교간대화2를 통해 동화사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다시한번 세계에 떨칠 예정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9월 5일 미국행사에 앞서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취지 등을 설명했다.

성문 스님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종교간 평화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에 뜻을 두고 준비됐다”며 “평화를 만드는 수행법으로서의 간화선 소개와 인류 평화를 위해 21세기 다문화·다변화 시대에 해야 할 종교의 역할과 개인별 수행의 중요성 등을 환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실스님은 올해 79세의 노령임에도 간화선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 행사도 조실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이번 행사가 한국불교를 미국 사회에 알렸던 숭산 스님에 버금가는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동화사 금강선원 50여 수좌스님이 미국 방문에 동참한



다. 미국 방문단만 200여 명이 넘는다. 또, 동화사 후불행화(대구시 유형문화재)와 성주 선석사 영산회상 탕화(보물 제1608호), 청도 적천사 과불 탕화(보물 제1432호)를 자수로 재현한 작품을 행사에 사용 후 현지에 기증할 예정이다. 동화사 등 한국전통사찰의 절경 및 문화재 등을 담은 사진 100여 점도 전시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성문 스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서 비롯됐다. 성문 스님은 최근 전통행사인 승시를 대구지역 문화축제로 키우려 바 있다.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민간교류를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1·2차 종교대화를 발판으로 불교-기독교간 대화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연 5000만원 내야 동국대 이사한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명신 미산 법산 성무 심경 영담 정덕 지하 스님 등 동국대 이사후보 8인 추천

조계종립 동국대 이사 후보로 명신·미산·법산·성무·심경·영담·정덕·지하 스님이 중앙종회에 추천됐다. 또, 동국대 이사들로부터 연 5000만원 이상 법인출연금을 의무화하는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만료된 정호 스님(용주사 주지) 후임으로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과 심경 스님(총무원 사서실장), 영배 스님 후임으로 명신 스님

(직능대표선출위원)과 법산 스님(前 동국대 교수), 영담 스님 후임으로 영담 스님과 지하 스님(前 중앙종회위원장)이 추천됐다. 비구니 이사였던 수인 스님 후임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정덕 스님이 추천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임기만료 됐던 정법 스님(월정사 주지)과 12월 3일부로 임기만료되는 성관(現 상임이사)·성타(불국사 주지) 스님의 후임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3일부로 임기만료 되는 전순표·최규철 이사 등 재가이사는 개방형이사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임기만료된 중앙승가대 이사 암도 스님의 후임과 감사 진호 스님의 후임 추천도 차기 종관위원회로 미뤄졌다.

조동섭 기자

“A스님 혼인사실 있다...” 파문

호법부는 6개월째 조사 중이다.

괴담으로만 떠돌던 승가의 비위 사실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 거조암 주지 현소 스님은 9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은혜사 중진 A스님이 출가기간 중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현소 스님은 A스님의 미국 정부가 발행한 혼인증명서와 이혼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스님은 A스님의 혼인 관련 서류는 2008년 입수했지만, A스님과 40년 지기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밝히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현소 스님은 “신상에 관한 일기에 개인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 가 오랫동안 고민했다. 자성과 색신 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생단과 은혜사를 위해 안되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

했다.

현소 스님에 따르면, A스님은 198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포와 혼인한 뒤 1993년 7월 합의이혼 했다. 이는 조계종 중현(제9조 제1항)의 승려의 출가독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A스님은 조계종 스님이 아니라는 것이 현소 스님의 주장이다.

현소 스님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3월 총무원 호법부에 진정했다. 하지만 호법부의 처리가 늦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법부는 현재 정경인·피진정인 조사는 했으나 관계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호법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 현지를 찾아 직접 조사할 여건이 안 돼

미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은혜사 7직 스님들이 참석해 현소 스님에게 폭로 자체를 요청하고, 발표 내용에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기도 했다.

은혜사 기획국장 상후 스님은 “A스님은 은혜사 인근에서 문중의 귀감이 될 정도로 지역적 신임이 크다”며 “A스님과 절친했던 현소 스님이 주지 제임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번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소 스님은 은혜사가 학교법인 동곡학원 설립하자 트집을 잡고 검찰에 고발을 했었다”며 “동곡학원 사회법 제소건 등으로 호법부 조사를 받고 있는 현소 스님이 A스님 문제를 언론을 통해 확대하는 것은 종단은 물론 은혜사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박규원 만평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

봉 모후산 도원사 개원 5주년 기념 1080 연등불사행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주 최 : 도원사, 관음회 방생회 신도일동

일 시 : 2011년 양력 9월 24일(토) 오후 4시부터
장 소 : 도원사내 야외음악단
초청가수 : 김용임, 정현, 정주호, 진주아, 주권기, 트로트가수 외 다수 출연 및 품바
연락처 : 061)372-1047. 010-6258-8325. 011-636-4110

협찬 : 화순군사암연합회, 화순군계사회, 불교TV, 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호남일보